



파키스탄 '샤를리 에브도' 규탄 집회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등장시킨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만평에 대한 이슬람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자마트-우드-다와의 지지자들이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샤를리 에브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에 저주를'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공개적 공격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슬람권 분노 확산...유럽국 테러 경계 강화

시위 격화 사망자 잇따라 무슬림 대상 보복범죄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등장시킨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향한 이슬람권의 분노가 일파파로 번지고 있다. 니제르에서는 사흘째 이어진 반대시위로 모두 10명이 사망했고 러시아 앙구셰티아에서도 1만5000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슬람권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추가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 만평 반발시위 격화... 니제르서 사흘째 10명 사망=17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에서 샤를리 에브도 만평 반대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5명이 사망했다. 이날 청년들이 주축을 이룬 시위대 1000여명은 교회와 호텔이나 술집 등 비무슬림 상점, 프랑스 기업체 간판이 걸린 사무실 등을 공격했으며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교회 8곳이 불탔다.

16일 니제르 제2도시 진데르에서도 샤를리 에브도 규탄 시위로 5명이 숨진 데 이어 니아메에서도 추가 피해가 나오면서 관

련 사망자 수는 모두 10명이 됐다. 이슬람교 지도자 아오우 손나도 동료 지도자 20명을 대표해 TV 연설을 나서 "이슬람교는 폭력에 반대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진정하자"고 호소했다.

니제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현지 자국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에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북캅카스 지역에서도 만평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앙구셰티아 자치공화국에서는 17일 1만5천여명이 모여 샤를리 에브도 만평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앙구셰티아에 인접한 체첸 자치공화국의 람판 카디로프 수장은 19일 수도 그로즈니에서 100만명이 만평 반대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이데르 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격적인 언사는 또 다른 유혈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분열과 거부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만평을 비판했다.

이란에서는 법원이 '나는 샤를리다' 문구를 1면에 실은 개혁 성향 일간지 '마르담-에-에르무즈'의 발행을 금지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13일자 1면에 골든볼로브에서 공로상을 받은 할리우드 스타 배우 조지 클루니의 사진과 클루니가 수상소감에서 말한 '나는 샤를리다' 문구를 함께 실었다.

◇유럽, '추가테러 방지' 경계 강화...무슬림 겨냥 보복범죄도=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경계 강화와 테러 용의자 검거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17일 유대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 300여명을 파견해 보안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유대인 보석상이 밀집한 안트베르펜 일대에는 150여명의 군인이 배치됐고 브뤼셀의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 사무실,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등의 경비가 강화됐다.

그리스 당국은 이날 아테네 등지에서 테러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모로코 당국은 IS 조직원 모집활동을 한 혐의로 8명을 체포했고 예멘 당국은 알카

에다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프랑스 국적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이탈리아는 지하디스트의 테러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이래 신분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 인근에서는 지난 14일 모로코 출신 40대 남성이 한밤중에 집으로 난입한 20대 남성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일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 등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나 관련 시설을 겨냥한 보복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했다. /연합뉴스

미 부통령 자택 충격 당해...테러 가능성 염두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17일(현지시간) 오후 총격이 가해져 총격을 주고 있었다.

다행히 총격 당시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없어 피해는 없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로버트 호백 대변인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정체불명의 차 한 대가 전날 오후 8시25분께 바이든 부통령 자택을 지나가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호백 대변인은 "바이든 부통령 자택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던 한 차량에서 여러 발의 총알이 발사됐다"면서 "이 차량은 당시 경호구역 밖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에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터키 실종 김군 사용 '슈어스팟' IS 조직원 모집 채팅 프로그램

터키의 시리아 접경 도시 킬리스에서 지난 10일 실종된 김모(18)군이 사용한 '슈어스팟'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조직원 모집에 사용하는 대표적 채팅 프로그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는 19일 김군이 슈어스팟을 사용해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와 수차례 대화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슈어스팟은 보안성이 뛰어나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남지 않으며 발신자가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IS가 'KIK'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생적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의 총원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IS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IS의 사상과 이슬람교리, 투쟁전술, 지하드그룹 가입 등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낸다"고 말했다.

IS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유튜브나 인

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IS의 영상 선전물을 접하거나 다비크나 하이트 등 IS의 공식 선전물을 통해 IS에 동화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교수는 "IS의 미디어 조직원들은 김군처럼 IS에 관심을 가진 접속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접속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즉각 슈어스팟과 KIK, 스카이프 등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일대일 접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IS가 이 과정에서 계속 계정을 바꾸어 가면서 추적을 피하다가 접촉 대상이 정밀 관심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하면 개인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조직원으로 유인하게 된다.

인 교수는 "이 경우 터키 남부의 시리아 국경에 관한 정보를 주거나 현지에 도착하면 접촉인에게 연락해서 국경을 넘게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군이 친구 '핫산'을 만나러 터키에 입국했으며 슈어스팟을 썼다는 점에서 IS의 통상적인 모집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IS 추종 세력, 美 버지니아주 카운티 전산망 해킹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세력이 이번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 전산망을 해킹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NBC 제휴 지역 방송사에 따르면 '팀 시스템 DZ'로 불리는 해커들이 지난 16일 밤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 웹사이트를 공격해 웹사이트가 마비됐다.

웹사이트에는 "IS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 동영상도 게재됐다.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는 워싱턴DC 남동부에 있는 인구 3만5천 명의 소규모 타운이다.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의 정보자원 책임자 돈 노버트스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면서 "해킹 바이러스를 삭제하고 웹사이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킹 공격을 한 '팀 시스템 DZ'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미사 700만명 운집

"어린이 등 약자 보호" 호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죄와 악에 유혹당하거나 순진한 쾌락과 천박한 유희로 가득찬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노란색 옷의 차림으로 필리핀의 서민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타고 운집한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닷새간의 교황 방문 일정 중 마지막 행사인 이날 야외 미사에는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00만~700만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노란색 옷의 차림으로 필리핀의 서민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타고 운집한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닷새간의 교황 방문 일정 중 마지막 행사인 이날 야외 미사에는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00만~700만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복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1. 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2. 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3. 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4. 사무실임대 치평동 우리은행위 학원, 모던업종가 50평, 고정주차있음 시설비, 리모델링 2천 60만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1. 기본 경매 강의
2.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1.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2.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3.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4.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5.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6.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7.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8.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임야

1. 북구 매곡동 토지 451 감정 1억1천, 최저 7천8백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